

중국 상해 출장 보고서

1 출장배경 및 목적

- 중국의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과 중국 내 법인 설립 요건 등의 규제 현황을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상해의 한진물류 중국법인(HANJIN GLOBAL LOGISTICS LIMITED), KMI, 상해 물류협회 및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 법인인 리거병원을 방문하여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2 출장세부계획

- 출장개요
 - 출장지: 중국 상해
 - 기 간: '15년 5월 18일(월) ~ 5월 20일(수), 출·입국일 포함
 - 출장자

이름	소속 및 직위	역할	출장기간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	연구진	2015.5.18~20
성기택	DMP Partners 소장	외부연구진	2015.5.18~19
박소라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연구진	2015.5.18~20
이예슬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연구진	2015.5.18~20

□ 방문기관 목록

- 서울리거병원
- KOTRA 상해
-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 출장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5. 18 (월)	오전	○ 출국 (08:45 인천 출발 09:40 상해 도착)	
		○ 서울리거병원 방문	장소 : 서울리거병원 회의실
	오후	○ 서울리거병원 관계자과 만찬	시간 : 19:00~20:00
5. 19 (화)	오전	○ KOTRA 상해 방문	장소: Mexdo Center
		○ KOTRA 상해 무역관 관계자와 오찬	시간 : 19:00~20:00
	오후	○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방문	장소: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회의실
		○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관계자 만찬	시간 : 20:00~21:00
5. 20 (수)		○ 입국 (13:35 상해 출발 16:35 인천도착)	

3 간담회 주요내용

1. 서울리거병원 간담회

일 시: '15년 5월 18일 (월), 17:00-20:00

장 소: 서울리거병원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 실장
성기택	DMP Partners 소장
박소라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이예슬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홍석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Frederick Chung	서울리거병원 CFO
심성근	서울리거병원 부장
Jane	서울리거병원 사원

주요내용

- 중국의료시장은 1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외자독자병원 허용이라는 환경제도의 변화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이 용이해짐.
- 또한, 다수의 지방정부/의료특구에서는 민영병원(외자병원) 설립 장려 및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소득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

- 음. 특히 고급/wellness 의료서비스에 대한 증가폭은 더욱 큼.
- 타이완,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다수 외자 병원들이 진출함.
 - 외자병원 설립은 시장 환경, 위험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함.
 - 중국의 의료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로비의 영향이 큰 만큼 독자적인 병원 운영은 피하고 신뢰 있는 중국 파트너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 중국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외국 기술의 개방적 정책을 통해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을 시 정책방향이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점점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한국 의료기관들은 한국의 관련 법률 및 환경으로 인해 해외 투자가 쉽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해외에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됨.
 - 이에 비하여 타이완, 싱가포르 등 영리성 의료기관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 의료기관들은 영리성병원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하고 있으며, 합자법인 등 기업형투자를 통한 중국 진출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의료기관들은 법률적인 제약 등으로 의료기관의 원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컨설팅/위탁운영 등 자본투자가 필요 없는 진출 방식을 선호함.
 - 개인 투자의 경우 규모 있는 투자가 힘들고, 컨설팅/위탁운영은 장기적인 발전에 제약이 있음.

- 한국 의료기관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성장환경, 제도 등의 이유로 인해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국의료서비스의 성공적 중국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시 시장조사, 사업전략 수립, 파트너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회사 및 의료수출전문회사의 육성이 필요함.

2. KOTRA 상해 무역관 간담회

일 시: '15년 6월 19일 (화), 11:00-13:30

장 소: KOTRA 상해 무역관 회의실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 실장
박소라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이예슬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홍석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유선	KOTRA 상해 무역관 차장
김은희	KOTRA 상해 무역관 사원

□ 주요내용

- 한국의 중국투자는 1991년 한중 수교 이후 큰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중국 투자는 미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음.
- 외국인의 100%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중국정부가 점점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여 독자기업으로 중국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감소화 및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음.
- 2014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 심사 및 비준 규범회 시범업무”를 시행할 것으로 밝히며 서류심사 간소화, 업무절차 투명화, 기업의 편리성 제고를 강조함.
- 중국 국무원에서는 2014년 의료개혁 심화 업무 통지를 통하여 중외합자의료기구에 대한 진입 기준 및 외국자본의 주식 보유비중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중국 지방 정부별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에 대한,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실질적인 혜택은 없음.
-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 중국인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임.

- KOTRA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중소기업 밀착지원서비스와 같이 수출기반이 약한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 주어야함.
- 또한, 한국이 중국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3.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간담회

□ 일 시: '15년 5월 19일 (화), 18:00-21:00

□ 장 소: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회의실

□ 참석자:

이 름	소속 및 직위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 실장
박소라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이예슬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홍석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태준	글로벌링크 사장
권영소	백세물류 이사
주민경	(주)한진 상하이 지점장
정인철	태응로직스 부장

□ 주요내용

- 국내 업체가 상해 보세구 창고에 물건을 미리 들여다 놓고 주문이 접수되면 통관을 거쳐 배송하는 표준적인 모델로 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 경우 기존에 비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도 세부담 절감
- 중국에서 냉동 창고에 대한 허가는 단독 외자기업은 불가하며 오로지 합자형태의 기업만 가능함. 중국 내 콜드체인 물류는 일본의 야마토가 가장 앞서가 있으며, 이 역시 합자형태로 운영 중임.
 - 현재 중국 내 연안운송 및 남북운송, 상해를 기점으로 하는 양자강 내 지 물류 등은 전혀 개방되어 있지 않음.
 - 연안운송권한 획득 자격요건이 이 분야 진출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 예를 들어, 외자기업은 중국 내 선주등록을 해야 하며, 최소 한척 이상의 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연안운송권한 획득이 가능한 자격이 됨.
 - 국내 물류기업이 중국 물류기업에 연안운송을 의뢰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요구하며 장기계약을 맺고 싶어도 가용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화주에게 제공 가능한 원활한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물류기업은 이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 측과의 교섭을 통해 연안운송권한 획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 물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